

한·일 “경색 타개 위해 소통 늘리자”

이낙연·아베 총리 21분간 회담 “북한문제 한미일 공조 중요” 문대통령 친서에 아베 감사 인사 ‘강제징용’ 양국 입장차 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지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 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다만 아베 총리의 경우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은 우선 “한일관계에 관해 양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한일 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간 청소년 교류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조 차관이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해결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회담이 마무리되기 전 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1페이지 분량의 이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

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회담장에서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일왕에게도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는 즉위를 축하하고 양국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희망하고, 레이와 시대 맞아 일본 국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한다는 간략한 인사가 담겼다”고 전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

이번 회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7월 이후 양국의 어려운 시기가 3개월 반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에 총리회담이 이뤄진 것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총리가 이런 경색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소통 촉진시켜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한 셈”이라며 “이제까지 비공식적,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됐던 대화들이 정부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이달 내 처리 무산 가능성

군소야당,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한국당 반대 공세 강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의 이달 내 우선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경심 교수 구속을 계기로 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군소 야당들은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4일 여야 교섭단체 협상 및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검찰 개혁 법안 및 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군소 야당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의석(128명)에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대안신당(바른미래당 소속인 장정숙 의원 포함 10명), 친여 성향 무소속(5명) 등을 합치면 의결정족수(149명)가 확보되는 만큼 이번 성향이나 지역적 기반(호남)이 같은 이들이 주요 접촉 대상이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의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10월 상정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상 시차가 한 달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선거법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법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종속적일 수도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주 선거법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30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실무협상도 진행된다. 그러나 3당간 근본적인 입장차를 고려할 때 내주 협상에서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군소야당 접촉도 당장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 “최악 국회 참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랜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로 첨부한 글에서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며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조차 ‘실망했다’는 말을 듣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불출마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지난 15일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동교동계·대안신당, 홍석현에 러브콜

“다른 인사 추천하겠다” 고사

동교동계 원로와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관계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회장과 만나 제3지대 신당 합류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과 민주평화당 조세숙·황주홍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의원은 전날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홍 회장과 만찬을 했다. 홍기훈·정호준 전 의원에 합류했다. 당초 바른미래당 소속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

인적 이유로 불참했다. 이번 회동은 홍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대철 전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이 따르면 이들은 홍 회장에게 제3지대 신당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제안했고, 홍 회장은 고사하면서 대신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신당 참여 여부를 떠나 서로 제3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룬 것이 큰 수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로 간 바른미래 당비 대납 의혹

비당권파, 조사 촉구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은 24일 순창군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변혁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해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에서 변혁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순 대표는 총 9회에

걸쳐 2천만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혁은 “정당법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 당비 대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월 1천원의 소액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당사무효형에 해당 하는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1년간 당원 자

격정지에도 처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순 대표는 이승호라는 자신의 비서에게 매달 250만원씩 현금을 줬다고 하는데 이상하다”며 “저만해도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하지 않은 당비의 경우는 직접 납부한다. 현금을 제3자에게 준 뒤 당 계좌에 입금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의혹을 제보한 당직

자는 심적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엄연한 범죄 혐의에 대한 양심고백이 공익 제보인 만큼 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을 제보받은 것은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라며 “저희(변혁)는 2~3주간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법령이나 개요 등을 공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형)**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운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형)**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